

한국광학기기협회 제 18차 정기총회 개최

- 1월 27일 서울팔래스호텔서 열려, 2005년 사업 예산 확정 -



▶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제18차 정기총회가 지난 1월 27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한국광학기기협회(회장·이원승)의 제 18차 정기총회가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7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성원보고와 함께 이원승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총회에서는 200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의결, 제명 회원사 특별손실 처분(안) 의결, 2004년도 잉여금 처분(안) 의결,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원승 회장은 개회 선언과 함께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당분간 기업의 경영 환경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기업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지하여 미리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사들이 자주 만나 의견 교환하고 잘하는 회사는 벤치마킹도 하고 적극적인

정책건의를 하는 등 협회를 적극 활용하는 해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초 산자부 산업기계과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광학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산자부에서도 광학관련 기술개발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며 “회원사들이 적극 동참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안건심의에서 본 협회 마삼열 부회장은 2004년도 협회의 사업보고를 통해 전년도에 협회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총 30개 사로 이중 정회원이 7개 사, 특별회원이 23개 사, 임의 탈퇴는 1개 사, 제명업체는 8개 사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보고에서는 레이저 발진기 및 응용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비롯하여 정밀광학렌즈 및 광학박막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인 한일광학



▶사업보고를 하고 있는 본 협회의 미삼열 부회장.



▶감사보고를 하고 있는 노원복 감사.



▶총회는 회원사 및 임직원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협회 및 회원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참석자들이 건배를 했다.

산업 기술협력사업과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에 관한 내용 설명이 있었다.

특히 전략적 해외시장개척사업과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중국 레이저시장 개척사업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인도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산업 시장조사사업을 펼친 바 있다. 관련 국내 레이저 업계 대표들로 시장조사단을 구성하여 인도에 파견한 내용과 보고서를 활용하여 인도 현지 의료용 시장에 적극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회원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전시사업으로는 국내에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서울국제 사진영상기자재전과 협회 주관으로 한국 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한 PMA 2004, Imaging 2004, Photokina 2004 등의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광학관련 표준화 사업과 관련하여 광학용어 및 측정표준화 연구용역사업, 정보화기기 분야 KS규격제정 연구용역사업, 광학분야 전략물자 조사·판정사업 등에 대한 성과 보고가 있었으며 협회 홈페이지의 영문홈페이지 신규 제작 및 사무실 이전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2004년도 결산서와 감사결과를 보고했으며, 2004년도 잉여금 처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2005년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협회에서는 올해 사업추진방향을 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 국제 교류 협력 사업 강화, 국내외 전시사업 지원확대,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잡고 세부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일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사업, 정밀광학렌즈 및 광학박막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광부품·광학기기·레이저·사무기기 등 분야별 선도업체를 선정, TF팀을 구성하여 광학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5월에 국내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사진영상기자재전' 개최와 PMA 2005, Photoforum 2005 등의 한국공동참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전시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광학관련 표준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학관련 해외자료 번역 및 책자 발간배포, 협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광학세계」내용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업종별 협의회를 적극 추진하여 업체들의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광학기기협회 제 1차 정기이사회 개최

- 광학관련 기술개발사업 과제 발굴에 관해 중점 논의 -

한 국광학기기협회(회장·이원승)의 2005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 20일 오전 11시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본 협회의 이원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임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기업환경이 어렵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회원사들이 자주 만나 정보교류를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광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에 이어 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200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의결의 건(감사 보고), 회원사 제명 및 특별손실 처분(안) 의결의 건, 2004년도 잉여금 처분(안) 의결의 건,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 의결의 건 등이다.

2004년도 사업보고에서 협회 및 회원현황, 주요 사업이 보고 됐으며, 결산 보고에서는 결산 총괄표, 당기수지총괄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2004년도 예산 결산 대비표를 제출했다.

이날 중점 논의된 사항은 광학관련 신규개발사업을 발굴하자는 내용이었다. 협회의 레이저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이 지난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으며 협회 입장에서 새로운 과제발굴이 시급한 가운데 산자부에서도 광학관련 기술개발



▶ 개회선언을 하고 있는 이원승 회장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원승 회장은 “금년에는 정부에서 먼저 제안하여 이미 테스트포스팀이 구성됐는데 그 안에서 광학이 개발과제로 도출될 수 있도록 협회를 주축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그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도록 집중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임원사들도 한결같이 “협회에서는 레이저 중기거점개발사업에 이은 기술개발사업이 시급하다.”며, “회원사중에서도 삼성테크윈과 신도리코 등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과 공동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한국광학기기협회 임원 명단

업체명-가나다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주)이오시스템 이원승	부원광학(주) 박춘봉	(주)다미상사 이기철	(주)한광옵토 노원복
	(주)신도리코 표희선	(주)롯데캐논 김대곤	
	(주)이오테크닉스 성규동	(주)산주 김옥수	
	(주)캐리마 이병극	삼성테크윈(주) 이중구	
		(주)삼양옵틱스 문영기	
		하나기술(주) 김도열	
		한국전광(주) 채진석	
		한국후지제록스(주) 정광은	
		해성옵틱스(주) 이을성	